



설비건설업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쏟는 원년으로 삼을 것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희망찬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고유가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안전불감증으로 발생된 태안앞바다 원유 유출사건은 몇십년이 걸릴지 모르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무거운 온 국민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는 미분양 적체로 이어져 많은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30년 건설업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내용으로 앞으로 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분야의 많은 경험과 누구보다도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침체된 경제회복은 물론이고 특히 건설물량 공급확대 공약은 건설업계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건설업계의 관심사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중 정부와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의 기계설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은 기계설비 검업제한 폐지의 4년 유예라는 큰 성과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 설비건설인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협회는 이제 유예된 4년 동안 설비건설발전방안을 수립하여 하도급 위주의 업역을 탈피하고 원도급 위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배럴당 100달러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기계설비의 품질향상은 에너지 효율 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CO₂배출감소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등 세계적인 환경문제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설비관련 개별법 제정은 이제 그 명분과 당위성이 분명해 졌으며, 우리 협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발주관서 등 기계설비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단결하여 정부나 국회에 그 명분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쏟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설비건설인들은 기계설비가 건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건설분야의 블루오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비건설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후배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건설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가입찰 관행 지양, 품질경쟁에 의한 성실시공, 신사업 영역 창출, 내실 및 인재 중시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설비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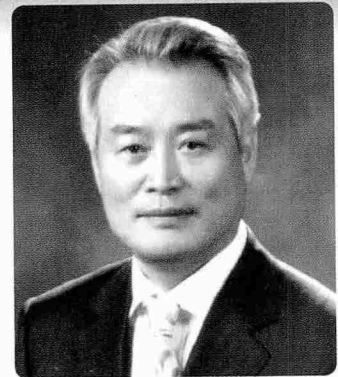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풍토 속에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무자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戊子年 元旦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신상품 개발 및 공제기능 강화 등 믿음을 주는 서비스 실천으로 건설보증시장 경쟁력 강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영식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과 설비건설업 가족 여러분께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설비조합 임직원 모두는 조합원 여러분의 경영활동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직원 정예화를 바탕으로 한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설비건설회관을 구입하여 지역조합원의 정보교류의 마당으로 활용하는 한편,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구조 다변화를 동시에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조합원이 잘되어야 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명심하고 조합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조합은 건설경제의 한 축을 충실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건실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건설보증시장의 경쟁력심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이 보상심사팀을 구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외부환경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운영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업무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근로자 재해 공제증권발급업무를 개시하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보다 저렴하게 조합원이 근로자재해공제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과 공제기능 강화를 통하여 더욱더 필요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2008년에는 [고객에 대한 책임경영실현]을 목표로, 서비스생산체계최적화, 조합원 지원체계의 혁신,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성화 등을 통해 임직원 모두는 믿음을 주는 서비스를 실천할 것이며, 효율적인 경영체계확립과 내부역량강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설비조합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설비건설업계는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또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얻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무자년 또한 많은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힘든 시련을 극복한 경험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토록 스스로 노력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도 우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이며, 여러분의 관심과 믿음에 부흥하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안정되고 발전된 모습의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끝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 영 식



건설산업의 대변혁기에 시대적 소명을 신속·정확히 전달, 설비건설업계 도약의 길라잡이 역할 다할 터



대한설비건설협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우 광 현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과 월간 「설비건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설비건설」은 지난 1990년 창간된 이래 17년 동안 설비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설비건설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독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보답으로 새해에는 설비건설 정책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언론으로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부터 건설산업은 대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방경제 체제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건산법 개정으로 겸업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위기와 도전의 기회에 직면해 있으며,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침체되었던 건설경기가 회복을 보일 것이란 기대와 희망도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한 가운데서 월간 「설비건설」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회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설비건설업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의 혁신, 사고의 혁신을 통해 첨단 설비건설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독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월간 「설비건설」을 애독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다함께 만들어가는 월간지, 읽을 거리가 풍성한 월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간 「설비건설」을 애독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매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